

기아차 수출비용 '부담되네'

목포신항만 "선적료 올려달라" 하역 거부 광양항 등 분산 운송편 연 30억 추가해야

목포 신항만(주)이 선적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물량에 대해 선적을 거부하면서 광주공장은 추가 물류비 압박을 받게 됐으며, 목포경제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신항만측 등이 선적료 조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선적거부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목포 신항만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기아차 광주공장은 16일부터 하루 700대분의 수출물량을 광양항, 군산항,

평택항으로 나눠 운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은 광주~목포간 물류비보다 연간 20억~3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광양항 등에는 야적공간을 확보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시도 연간 15만대에 달하는 광주공장 물류를 타 지역으로 빼앗겨 연간 30억원대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기존의 수출물량에다 올 하반기에 수출전략차종인 'AM(프로젝트명)' 물량까지 감안할

경우, 경제적인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돼 수출라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항만 관계자는 "최근 선박기자재와 컨테이너 등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 수익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아차 수출차량을 끼고 가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목포경제 활성화를 고려, 빠른 시일내에 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신항이 자동차 수출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10만㎡의 부지가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토해양부와 해양항만청·신항만간 선적료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신항만 측이 누적저장을 들어 더 이상 기아차의 수출차량 선적을 할 수 없다고 통고하면서 예견돼왔다.

급기야 지난 15일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기아차 수출차량 운송트럭인 TP(트랜스포터)트럭 60여대가 실고 있던 수출차량 300여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담양 야적장으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진도 특산물전 인기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진행중인 '진도 특산물전(11~17일)'에서 전북조직원이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산물전에서는 또 홍새우·꿀투기·아이스인절미·메론오색경단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기아, 美 공장 건설 비용 절감

투자금 4억5천만불 ... 輸保 보증으로 싸게 빌려

북미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중인 기아자동차가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됐다.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기로 결정한 보증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16일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기아차는 HSBC와 ING 등 국제 금융기관들로부터 4억5천만 달러의 미국공장 건설자금에 차입하기로 했다. 계약조건은 평균 대출기간 6년, 금리는

런던 은행간 금리(LIBOR)에 0.56%의 가산금리를 얹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번에 적용된 낮은 금리는 국제적 은행들이 수보의 담보력을 인정한 결과"라며 "앞으로 기아차와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들도 양호한 조건의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업 지원센터 문 열었어요"

광주·전남중기청, 민원실·제주시험연구센터 2곳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16일 지방청 민원실과 제주시험연구센터에 '창업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자가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 설립, 공장건축, 인·허가사항, 창업자금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중기청은 창업지원센터 내에 법인(개인)·공장설립을 담당하는 창업담당관, 인·허가담당관, 경영지원담당관 등 3개 분야의 전문가를 배

치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찾아가는 지원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창업 및 기술지원, 경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창업 지원센터'에 광주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지원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수출 기업에 해외 마케팅 노하우 전수

중기청 '광주·전남지역 中企 네트워크' 운영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해외 마케팅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광주·전남지역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의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정인 네트워크는 '글로벌 비전 리더스 클럽'이며, 지역소재 수출중소기업 62개를 비롯해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9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다.

'글로벌 비전 리더스 클럽'은 17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강당에서 결성식을 갖고 수출기업 멘토·멘티를 구성해 수출성공기업의 정보·경험 등을 초보기업에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수출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글로벌 비전 리더스 클럽'을 통한 우수 수출기업 방문, 벤치마킹, 해외마케팅 전략세미나, 해외시장 진출 성공·실패사례 발표회, 국제 전시회 참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하도급 분쟁' 자율조정 기구 가동

전경련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계 차원에서 자율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가동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간 협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애로를 자율조정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전경련회관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or.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애로는 센터 사무국의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 심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기구인 협력애로 개선협의회로 넘겨지며 협의회는 조정, 개선의견을 마련해 각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자율조정과 중재에 나서게 된다.

/연합뉴스

국민 10명중 6명 "노후 준비 못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라이프케어연구소는 최근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과 경기도, 6대 광역시의 25~64세 성인 남녀 2천68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한 결과가 같이 나타났다. 16일 밝혔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39.2%에 그친 것이다.

나머지는 '계획만 있다'(34.2%), '모르겠다'(16.6%), '계획 없다'(10%)고 대답했다.

그러나 부유층(연 평균 가구소득 8천만원 이상)이면서 금융자산 2억원 이상) 203명을 상대로 한 별도의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8.5%에 달했다.

노후 대비에도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韓銀 '통화 경시대회'

광주전남본부 참가자 모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현덕)는 오는 28일부터 '2008 한국은행 통화 경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국내 경제와 통화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7월14~16일 한은 광주전남본부에서 호남지역 대회가 열린다.

참가대상은 호남지역 4년제 대학 재학생이며, 참가 희망자는 28일부터 5월23일까지 한은 경제교육 홈페이지(economy.bokeducation.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www.dongyang.com

당도 맛목을 이기는 **당양산과** 에서 **시제·제사상** 을 **차려드립니다**

당양산과

문의전화 061-383-8283 라미대중

흠 퍼서 장사해 40억을 번 이야기

전통운세 060-700-3657

삼성생명 라이프케어연구소

이종태 기자 jtle@kwangju.co.kr